

관광열차·명품관 확충으로 한계... '그랜드 프로젝트' 세워야

광주·전남 대도약의 해를 열자
<4> 호남고속철 개통

수도권 역류 막을 대책 시급

오는 4월 호남고속철도(KTX·광주~서울)가 예정대로 개통되면 광주도 전국 반나절 생활권으로 들어서게 된다. 광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33분이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광주와 전남의 생활환경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소비자의 입장에서 교육과 의료, 쇼핑 등 수도권보다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의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반기는 반면 지역 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수도권으로 소비자들이 흡수되는 '역류현상'으로 지역경제의 붕괴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 같은 역류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기존에 제시된 단순한 대책만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지역산업의 수도권 역류 현상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지역 소비자를 유지하면서 외지 소비자를 끌어들이 수 있는 획기적인 '그랜드 프로젝트'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KTX 호남선 개통을 앞두고 교통체계와 문화관광, 도심환경 개선, 유통·쇼핑, 의료 등 5개 분야의 37개 과제별로 종합대책을 점검했다. 하지만 대책내용이 시내버스 노선 증설이나 관광열차 편성 등을 나열하는 수준인데다 그나마도 대부분 KTX 개통 이후 준비·추진하겠다는 것이어서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타지역과 차별화돼 외지인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랜드 프로젝트'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광주의 경제가 수도권으로 빨라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광주·전남에 외안 경쟁할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 상품 개발과 숙박시설 확충, 서비스 의식 개선 등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이 우선돼야 한다

지역 쇼핑·의료·교육 붕괴 위기

광주시·전남도 대응책 미흡

관광 인프라·아웃렛 유치 등 절실

는 입장이다.

또한 '스웨덴식 가구' 열풍을 몰고 온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IKEA)처럼 국내 어느 곳에도 없는 새로운 쇼핑센터를 유치하는 등의 '그랜드 프로젝트'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경기도 광명시에 국내 1호점을 오픈한 이케아는 개점 한달만에 방문객이 1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쇼핑객을 불러들이며 잠재한 광명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가구 외에도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다양각색의 다양한 생활소품을 배치한 덕분에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인근 지역이 급속한 차량정체와 주차난에 시달릴 정도로 대호황을 누리고 있다.

광주시도 이처럼 타지역과 차별화한 대형 쇼핑센터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쇼핑 분야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시는 쇼핑객 이탈을 막고 외지 쇼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지역 내 백화점에 명품 브랜드 공간을 확충한다는 방침이지만, 수도권에 넘쳐나는 명품관을 늘리는 것으로 쇼핑객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한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명품 할인점(아웃렛) 유치 등을 검토해 타지역 쇼핑객은 물론 국내 관광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중국인 관광객을 유인하는 인프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과 호남을 오가는 관광열차와 함께 호남선과 전라선 열차를 활용한 서남해안 관광 노선의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 리아스식 해안 전체의 관광자원과 남도음식 등 호남만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관광 인프라를 KTX와 접목한다면 외지 관광객 유치 등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지역 관광업계의 의견이다. <끝>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3일 오후 서울한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마친 송하진 전북지사(왼쪽부터),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설문식 충북정부무부지사가 국토교통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이날 서 장관을 만나 KTX 서대전역 경유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KTX 노선 원안 운행'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주말 출퇴근 시간 40분 이상 지체"

나주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 호남고속철 서대전 경유 반발

개통을 앞둔 호남고속철도의 서대전 경유 문제가 호남·충청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주 및 나주혁신도시 내 이전기관 직원들도 경유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전역 경유가 현실화될 경우 용산~광주승객 간 소요 시간이 40분여 지체되기 때문이다.

3일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따르면 최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협의회 제2차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이전기관 직원들이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문제와 관련 전남도 관계자들에게 현재 논의과정을 질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녀교육이나 맞벌이 등으로 인해 가족이 혁신도시로 이주하지 못한 일부 직원들의 경우 호남고속

철도 개통에 따라 금요일 오후 귀경했다가 다음주 월요일 혁신도시로 돌아오는 일정을 구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라도 서대전 경유가 확정되면 소요시간 지체가 불가피해 호남고속철도 개통 효과도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건설목적에 역행하는 서대전 경유 추진을 즉각 백지화하고 원안대로 운행계획을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이 단체가 청주 오송역 광장에서 주최한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반대' 충북도민 결의대회에는 이인구 충북도의회 의장과 이승훈 청주시장 등 500여명(경찰추산)이 참석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출범 6개월 윤장현號 조직 새판짜기

장현 정무특보 사임...비서실장 등 '핵심 4인방' 모두 교체

출범 6개월을 넘어서 '윤장현호(號)'가 '핵심 4인방'을 전면 교체하는 등 조직 새판짜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선 6기 시청 조직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시민중심의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일꾼 체제'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민선 6기 첫 정무특보로 선임된 장현(59)씨가 이날 사직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지난 1월 인사에서 교체된 박남언 전 안행장국장(건설교통국장)과 김병수 전 대변인(교육), 채영선 전 비서실장(문화도시 정책관)을 포함, 윤 시장을 최전방에서 보좌해온 '핵심 4인방'이 6개월 만에 모두 교체된 것이다.

반년 만에 핵심 4인방이 전면 교체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인적쇄신을 통해 시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윤 시장의 의지가 적극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공식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명한 장현 특보는 "취임 초반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정리된 만큼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민을 위해 전력할 일꾼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새봄이 찾아오는 3월을 민선 6기 제2의 도약기로 정하고, 이번 달 내에 신입특보 선임 등 대부분의 인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달여동안 고민해온 행정부시장의 선임도 조망기에 들어간 상태다. 오형국 현 행정부시장의 임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후임 행정부시장 후보

군으로 다수의 중앙인사가 거론돼 왔으며, 윤 시장은 현재 최종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째 공석중인 광주테크노파크 원장도 선임을 앞두고 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지역 내 기업과 대학 등을 모두 아우르는 산·학·연 협력의 산실이라는 점에서 시 산하 기관 중 핵심 기관으로 꼽힌다. 지난 2월 마감한 원장 공모에는 배정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본부장과 홍진태 전 광주시 경제산업국장, 서대석 전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한 기업인과 교수 등 12명이 응모했다.

8명으로 구성된 원장추천위원회는 5일 서류심사와 9일 면접을 거쳐 2명의 후보를 이사회(12일)에 올리고, 이사회(이사장 윤장현)는 이 중 1명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승인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원장 선임 승인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광주시측에 전문성을 갖춘 원장 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일고와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뒤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장 등 경제·산업분야를 두루 거친 배정찬 본부장과 경제 관료 출신인 홍진태 전 국장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는 이 밖에도 (재)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초대원장 선임 절차도 밟고 있다. 시는 3일 김능채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상임이사과 정희곤 전 광주시의원 등 5명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했으며, 10일 2~3배수로 시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호남예술제 60주년 기념공연

베를린 필하모닉 스트링 콰르텟

기교적 완성도와 예술적 몰입에 대한 최상의 기준을 제시하는
세계 최정상 '현악 4중주단' 내한공연

2015 Philharmonia Quartet
BERLIN
with the Pianist
CHO JAE HYUCK
VIP 80,000원 / R 60,000원 / S 40,000원 / A 20,000원

3. 9(월) 7:30PM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주최 **광주일보사** · 아시아문화

주관 **DK3** 문화공방디케이비(주) 후원

에매

문의 062. 523. 0333